

#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1-11

## 【인도자를 위한 예화】

미국 시인이자 수필가인 캐슬린 노리스(Kathleen Norris)는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라는 책에서 자신의 언어로 천국을 정의합니다. 베네딕도 수녀회의 한 수녀가 병원 침상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는 자기 어머니와 천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녀는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려고 “어머니,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습니다(In heaven, everyone we love is there).”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 내쉬며 딸에게 간신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딸아, 아니란다.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야(In heaven, I will love everyone who’s there).” 딸이 생각하는 천국과 어머니가 생각하는 천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딸이 착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인종과 성별, 나이와 계급 등에 상관없이 누가 있든지 모두를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옥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나는 일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 【본문 읽기】 골로새서 3: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그리스도의 우월성(1:13~2:23)에 대해 기록한 전반부에 이어서 3장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고(롬 6:2),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점차 성화합니다. 이어서 3장 후반부에서는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죄악으로 오염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므로(빌 3:20) 천국의 법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이 마땅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의 반대는 ‘아래 것’으로, 이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져온 세상에 더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결국 위의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곳은 성도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3~4절).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도는 언젠가 세상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누릴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참소망이 되는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 적용과 나눔 I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과감히 버릴 것과 더욱더 추구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골로새 성도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2:12).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위의 것',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덕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든 우리는 보는 것을 닮게 되고, 바라보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명 중 열 명은 애굽을 떠난 후에도 애굽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엔 열두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성도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 관찰과 묵상 II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어떤 사람들인가요?(10~11절)**

출신과 혈통, 환경 등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하고도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사고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 적용과 나눔 II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시선으로 내가 품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복음은 특정한 부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눅 4:18).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직업과 계급, 성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사람대접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참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세상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겉모습과 마음과 가치관이 모두 변화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 주는 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나를 받아 주셨듯이, 나도 사람들을 어떤 차별도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